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관계*

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The Relationship among Child Care Teachers' Personal Characteristics,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Kim, Jung Hee Lee, Yong Joo Kim, Dong Choon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강원지역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154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회복탄력성 질문지(이정현, 2013)와 사회적 지지 설문지(이재영, 2012)를 사용하였다. 결과 처리를 위해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t-검증, ANOVA, Scheffé의 사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경력, 연령, 기관유형, 결혼유무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과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7년 이상의 경력교사가 3년 이하와 4-6년 경력교사 보다 회복탄력성 전체와 긍정성을 유의하게 높게 경험하였다. 25세 이하 교사 보다 46세 이상 교사가 회복탄력성 전체를 유의하게 높게 형성하였고, 자기조절능력은 25세 이하 교사 보다 41-45세 교사가, 긍정성은 41-45세와 46세 이상 교사가 25세 이하의 경우 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게 형성하였다.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법인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회복탄력성 전체와 긍정성을 높게 형성하였고,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 보다 회복탄력성 전체, 자기조절능력, 긍정성을 높게 형성하였다. 반면 학력에서는 집단 간 유의차가 없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각 하위변인 및 전체 간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물질적 지지는 긍정성과 회복탄력성 전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평가적 지지는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회복탄력성 전체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주었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개인변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 주제어 :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보육교사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 제 1저자 : 경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교신저자 : 경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공동저자 :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는 수행해야 할 업무량이 많고, 업무시간이 장시간이라는 보고들을 통해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소진의 정도가 대체로 높다고 보고되고 있지만(이정희, 조성연, 2011), 모든 교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이나 퇴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교사로서 자신을 발달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만족하기도 하는데, 부딪히는 스트레스가 동일하더라도 회복탄력성으로 이를 조절하고 회복하는 교사들도 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인간이 신체적, 심리적 위협 요인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라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인 면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김소연, 2013)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능력이다(Block & Kremen, 1986).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등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데(이정현, 2013), 자기조절능력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역경이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자기조절능력에는 감정조절력과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등의 요소가 있다.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소통능력, 공감능력, 그리고 자아확장력을 포함한다. 긍정성은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나 자신에 대한 능동적이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자아낙관성과 생활만족도, 감사하기 등을 포함한다.

교사는 신체적인 면에서나 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 정서가 요구된다(이정현, 2013). 또한 타인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지속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도와야 하며 자기 자신의 관리에 여유가 없고 업무의욕을 상실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소진상태에 이르기 쉽다. 그러므로 교사의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 회복탄력성은 필요하다. 회복탄력적인 보육교사들은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심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삶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경험을 잘 헤쳐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이소영, 2014). Gu와 Day(2007)는 역할모델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교사가 회복탄력적인 자질을 보이지 않으면 아동에게 회복탄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회복탄력적인 교사는 아동에게 정서적인 안녕과 보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배려가 있고 지지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취감이나 소속감, 인정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긍정적이고 높은 기대를 갖고 수업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아동은 회복탄력성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영유아들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동안에 스스로가 탄력적인 보육교사는 보다 자신감 있는 낙천성과 생산적인 활동으로 질적 보육을 기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된다.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권수현과 이승연(2010)의 연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최효정과 석은조(2013)의 연구에서는 기관변인보다는 개인적 변인에서 회복탄력성 전체와 하위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났음을 밝혔다. 김

소연(2013)은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의 개인변인과 기관변인에 따라 회복탄력성은 다르게 형성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적인 유치원교사들은 직무수행 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들이 가진 회복탄력성을 발휘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재적용해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며(박은혜, 전셋별, 2010), 교사의 교직 생애주기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stro, Kelly, & Shine, 2010). Gu와 Day(2007)는 회복탄력성을 가진 교사는 교수-학습에서의 효과와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변화가 많은 교육환경에 적응을 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직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을 밝혔다. 또한 선행연구결과 회복탄력성은 결혼유무와 학력(권수현, 이승현, 2010), 경력(홍승희, 2009), 연령(Roman-Oertwing, 2004)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외에도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을 다룬 국내의 연구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소영(2014)의 연구와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황승미(2013)의 연구 등이 있다.

보육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휴먼서비스(human service)라 볼 때,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변인이 되는데, 이는 교육의 핵심적인 활동이 원장과 교사, 영유아, 그리고 학부모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교사가 보유한 지식, 기술, 자원을 바탕으로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김정희, 2007). 보육교사의 업무의 대부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린이집이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인간관계가 밀접한 조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제공되는 물질적, 심리적인 도움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지는 보다 직접적으로 교사들에게 전달되며 교사가 지각하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란 1970년대에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충할 수 있는 속성을 갖춘 용어로, 한 개인이 가진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이라 볼 수 있다(Schwarzer & Nina, 2007).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장과 동료교사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인 하위요인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나 환경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어 그 자신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애정이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다. 물질적 지지는 물건 제공, 금전, 시간, 음식 등을 필요시 직접 제공하는 등의 개인이 필요한 어떤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며, 평가적 지지는 개인에게 역할 수행과 행위에 관한 구체적 평가정보를 전달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유치원교사의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배영선, 2007),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조성자, 문수백, 민하영, 2008). 유치원 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살펴본 이윤경(1999)은 동료교사들이 서로 우호적인 관심과 지지, 격려를 바탕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며, 원장의 교사를 위한 충분한 배려와 지지는 교사의 업무몰입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교사와 원장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으며(조성연, 이정희, 2010), 소진을 더 적게 느낀다는 결과들이 있다(김지은, 안선희, 2007).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재영(2012)의 연구결과에서는 회복탄력성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해익, 탁정화, 홍성희(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유치원교사의 회복탄력성이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cCormack, Casimir, Djurkovic과 Yang(2006)은 동료교사의 지지를 높이 지각하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Holahan과 Holahan(1987)의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한 사람일수록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Baruch-Feldman, Brondolo, Ben-Dayan과 Schwartz(2002)의 경우 사회적 지지는 업무 만족과 생산성 및 심리적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직무환경 내에서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받게 되는 보육교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직업인으로 인식하게 되며, 회복탄력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을 결부지어 주요 문제로 다룬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 중 하나로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안과 개인변인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첫째,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라 회복탄력성은 차이가 있는가?
- 둘째,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셋째,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강원지역 교사연수에 참여한 보육교사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으며, 이 중 미기재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154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보육교사의 경력은 3년 이하가 72명(46.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이었으며, 연령의 경우 41-45세 이하가 38명(24.7%)로 가장 많았고, 학력 면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이 92명(59.7%)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63명, 40.9%)이 기관유형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혼교사가 98명(63.6%)으로 미혼교사 56명(36.4%) 보다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54)

| 변인 | 구 분 | N(%) | 변인 | 구 분 | N(%) |
|----|-----------|----------|-------|---------------------|----------|
| 경력 | 3년 이하 | 72(46.7) | 학력 | 고등학교 졸업(보육교사교육원 수료) | 26(16.9) |
| | 4-6년 이하 | 42(27.3) | | 전문대학 졸업 | 92(59.7) |
| | 7년 이상 | 40(26.0) |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 36(23.4) |
| 연령 | 25세 이하 | 17(11.0) | 기관유형 | 국공립 | 14(9.1) |
| | 26-30세 이하 | 34(22.1) | | 민간 | 63(40.9) |
| | 31-35세 이하 | 12(7.8) | | 가정 | 51(33.1) |
| | 36-40세 이하 | 27(17.5) | | 법인 | 26(16.8) |
| | 41-45세 이하 | 38(24.7) | 결혼 유무 | 미혼 | 56(36.4) |
| | 46세 이상 | 26(16.9) | | 기혼 | 98(63.6) |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법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및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검사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8명의 현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013년 6월 20일-30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과정은 근무 중인 어린이집 4곳을 연구자가 방문하여 기관별 2명의 해당교사가 연구자와 함께 문항별로 내용을 체크하면서 대화식으로 진행되었다. 소요시간은 약 30분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도구가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2013년 8월 한 달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교사연수에 참여한 보육교사에게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사회적 지지

본 척도는 박지원(1985)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이재영(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총 24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 요인, 하위내용,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신뢰도 계수는 .82~.9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회복탄력성

본 척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Reivich와 Shatte(2002)의 회복탄력성 도구를 국내의 특수학교교사를 대상으로 수정한 이정현(2013)의 척도를 본 연구자가 보육교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동료’의 경우 ‘어린이집의 동료교사’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총 53문

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이 높음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 척도의 하위요인, 하위내용,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신뢰도 계수는 .76~.90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도구별 문항 수 및 신뢰도

| | 하위요인 | 하위내용 | 문항수 | Cronbach' s α |
|--------|--------|---|-----|----------------------|
| 사회적 지지 | 정보적 지지 | 동료교사, 선배교사, 원장, 기타 교직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식, 정보, 조언, 충고, 상담, 문제해결에 관련된 요인 | 7 | .93 |
| | 정서적 지지 | 동료교사, 선배교사, 원장, 기타 교직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격려, 이해, 축하, 관심에 관련된 요인 | 9 | .93 |
| | 물질적 지지 | 동료교사, 선배교사, 원장, 기타 교직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노동, 금전, 물건, 시간 등과 관련된 요인 | 3 | .82 |
| | 평가적 지지 | 동료교사, 선배교사, 원장, 기타 교직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칭찬, 믿음, 인정, 존중 등과 관련된 요인 | 5 | .86 |
| | 총 점 | | 24 | .97 |
| 회복탄력성 | 자기조절능력 |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 18 | .82 |
| | 대인관계능력 | 타인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 18 | .76 |
| | 긍정성 |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나 자신에 대한 능동적이며 자신감 있는 태도 | 17 | .85 |
| | 총 점 | | 53 | .90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양호도 분석 및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SPSS 21.0 versio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할 검사도구의 신뢰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 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ANOVA 검증 및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의 각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의 투입방식은 선택한 모든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값까지 모두 산출되는 동시투입방식을 활용하였다. 이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해 본 결과 분산평창계수(VIF)는 2.160으로 10이하이고, 공

차한계(TOL)가 0.463으로 0.1이상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연구문제별로 분석을 하는 것에 앞서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복탄력성은 전체 평균이 3.56점으로 중간이상이었으며, 긍정성($M=3.59$), 대인관계능력($M=3.58$), 자기조절능력($M=3.51$)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즉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성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 자기조절능력 순으로 능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전체 평균이 3.69점으로 중간이상이었으며, 물질적 지지($M=3.76$), 정서적 지지($M=3.69$), 정보적 지지($M=3.68$), 평가적 지지($M=3.64$)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즉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물질적 지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순으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N=154)

| 하위요인 |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M) | 표준편차(SD) |
|--------|--------|------|------|-------|----------|
| 회복탄력성 | 자기조절능력 | 2.50 | 4.72 | 3.51 | .39 |
| | 대인관계능력 | 1.72 | 4.61 | 3.58 | .43 |
| | 긍정성 | 2.59 | 5.00 | 3.59 | .45 |
| | 전 체 | 2.70 | 4.62 | 3.56 | .35 |
| 사회적 지지 | 정보적 지지 | 2.00 | 5.00 | 3.68 | .61 |
| | 정서적 지지 | 2.11 | 5.00 | 3.69 | .59 |
| | 물질적 지지 | 2.00 | 5.00 | 3.76 | .66 |
| | 평가적 지지 | 2.20 | 5.00 | 3.64 | .57 |
| | 전 체 | 2.08 | 5.00 | 3.69 | .57 |

1.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표 4>의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경력, 연령, 기관유형, 결혼유무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과 전체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먼저 경력의 경우 긍정성($F=6.24, p<.01$)과 회복탄력성 전체($F=3.48, p<.05$)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다. 하위집단 간 차이를 Scheffé 검증을 통해 실시한 결과, 긍정성의 경우 7년 이상 집단($M=3.88, SD=.52$)이 4-6년 집단($M=3.52, SD=.32$)과 3년 이하 집단($M=3.54, SD=.44$)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회복탄력성 전체의 경우 3년 이하 집단($M=3.53, SD=.35$)과 4-6년 집단($M=3.53, SD=.27$)보다 7년 이상 집단($M=3.73, SD=.39$)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7년

이상의 경력교사가 3년 이하와 4-6년 경력교사 보다 회복탄력성 전체와 긍정성을 유의하게 높게 경험함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자기조절능력($F=3.67, p<.01$)과 긍정성($F=5.67, p<.001$), 회복탄력성 전체($F=3.35, p<.01$)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다. 하위집단 간 차이는 자기조절능력에서 25세 이하 집단($M=3.24, SD=.28$) 보다 41-45세 집단($M=3.63, SD=.4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긍정성에서 41-45세($M=3.66, SD=.39$)와 46세 이상($M=3.88, SD=.47$)이 25세 이하 집단($M=3.23, SD=.41$) 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회복탄력성 전체에서는 25세 이하 집단($M=3.29, SD=.30$) 보다 46세 이상 집단($M=3.69, SD=.40$)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25세 이하 교사 보다 46세 이상 교사가 회복탄력성 전체를 유의하게 높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자기조절능력은 25세 이하 교사 보다 41-45세 교사가 유의하게 높게 형성하였고, 긍정성에서는 41-45세와 46세 이상 교사가 25세 이하의 경우 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게 형성하였음이 분석되었다.

기관유형에서는 긍정성($F=2.96, p<.05$)과 회복탄력성 전체($F=2.90, p<.05$)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위집단 간 차이는 긍정성의 경우 가정 집단($M=3.70, SD=.42$)이 법인($M=3.38, SD=.47$)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회복탄력성 전체에서도 가정 집단($M=3.64, SD=.34$)이 법인($M=3.39, SD=.35$)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법인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회복탄력성 전체와 긍정성을 높게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유무의 경우 자기조절능력($t=-2.51, p<.05$)과 긍정성($t=-3.31, p<.01$), 회복탄력성 전체($t=-2.55, p<.05$)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다. 즉, 기혼 집단($M=3.57, SD=.39$)이 미혼 집단($M=3.40, SD=.38$) 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높았고, 긍정성(기혼: $M=3.68, SD=.40$; 미혼: $M=3.43, SD=.49$)과 회복탄력성 전체(기혼: $M=3.61, SD=.33$; 미혼: $M=3.46, SD=.37$)에서도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에 비해 높게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학력에서는 회복탄력성 전체($F=2.17, n.s$)와 각 하위요인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없었다.

<표 4> 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 개인변인 | N | 자기조절능력 | 대인관계능력 | 긍정성 | 회복탄력성 전체 | |
|----------|---------|--------|--------------------------|------------|--------------------------|--------------------------|
| | | M(SD) | M(SD) | M(SD) | M(SD) | |
| 경력 | 3년 이하 | 72 | 3.47 (.38) | 3.57 (.45) | 3.54 ^a (.44) | 3.53 ^a (.35) |
| | 4-6년 이하 | 42 | 3.52 (.34) | 3.55 (.34) | 3.52 ^a (.32) | 3.53 ^a (.27) |
| | 7년 이상 | 40 | 3.67 (.47) | 3.66 (.40) | 3.88 ^b (.52) | 3.73 ^b (.39) |
| <i>F</i> | | | 2.57 | 0.49 | 6.24 ^{**} | 3.48 [*] |
| 연령 | 25세 이하 | 17 | 3.24 ^a (.28) | 3.40 (.44) | 3.23 ^a (.41) | 3.29 ^a (.30) |
| | 26-30세 | 34 | 3.38 ^{ab} (.37) | 3.63 (.38) | 3.51 ^{ab} (.43) | 3.51 ^{ab} (.34) |
| | 31-35세 | 12 | 3.53 ^{ab} (.42) | 3.62 (.48) | 3.47 ^{ab} (.46) | 3.54 ^{ab} (.42) |

| | | | | | | |
|------------------|----------|----|--------------------------|------------|--------------------------|--------------------------|
| | 36-40세 | 27 | 3.59 ^{ab} (.30) | 3.55 (.50) | 3.59 ^{ab} (.38) | 3.58 ^{ab} (.31) |
| | 41-45세 | 38 | 3.63 ^b (.41) | 3.58 (.39) | 3.66 ^b (.39) | 3.62 ^{ab} (.31) |
| | 46세 이상 | 26 | 3.57 ^{ab} (.39) | 3.65 (.42) | 3.88 ^b (.47) | 3.69 ^b (.40) |
| | <i>F</i> | | 3.67 ^{**} | .84 | 5.67 ^{***} | 3.35 ^{**} |
|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 26 | 3.46 (.42) | 3.53 (.43) | 3.54 (.40) | 3.51 (.34) |
| | 전문대학 졸업 | 92 | 3.49 (.35) | 3.55 (.42) | 3.56 (.44) | 3.53 (.33) |
| | 4년제 졸업이상 | 36 | 3.60 (.45) | 3.70 (.44) | 3.69 (.49) | 3.66 (.39) |
| | <i>F</i> | | 1.35 | 1.96 | 1.27 | 2.17 |
| 기 관 유 형 | 국·공립 | 14 | 3.51(.35) | 3.63(.35) | 3.57 ^{ab} (.26) | 3.57 ^{ab} (.27) |
| | 민간 | 63 | 3.50(.41) | 3.60(.40) | 3.59 ^{ab} (.47) | 3.56 ^{ab} (.36) |
| | 가정 | 51 | 3.60(.37) | 3.62(.48) | 3.70 ^a (.42) | 3.64 ^a (.34) |
| | 법인 | 26 | 3.36(.37) | 3.43(.40) | 3.38 ^b (.47) | 3.39 ^b (.35) |
| | <i>F</i> | | 2.22 | 1.27 | 2.96 [*] | 2.90 [*] |
| 결 혼 | 미혼 | 56 | 3.40(.38) | 3.55(.42) | 3.43(.49) | 3.46(.37) |
| | 기혼 | 98 | 3.57(.39) | 3.60(.43) | 3.68(.40) | 3.61(.33) |
| | <i>t</i> | | -2.51 [*] | -.67 | -3.31 ^{**} | -2.55 [*] |

주: a, b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2.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표 5>를 통해 살펴보면, 각 하위변인 및 전체 간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지지 전체는 회복탄력성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507$,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인의 각 하위요소($r=.244\sim.530$, $p<.01$) 역시 상호 간의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 전체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의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전체와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등의 하위요인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5>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 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정보적 지지 | 1.00 | | | | | | | | |
| 2. 정서적 지지 | .891** | 1.00 | | | | | | | |
| 3. 물질적 지지 | .823** | .851** | 1.00 | | | | | | |
| 4. 평가적 지지 | .844** | .862** | .733** | 1.00 | | | | | |
| 5. 사회적 지지 전체 | .957** | .973** | .888** | .316** | 1.00 | | | | |
| 6. 자기조절능력 | .244** | .352** | .339** | .371** | .340** | 1.00 | | | |
| 7. 대인관계능력 | .358** | .466** | .429** | .464** | .453** | .555** | 1.00 | | |
| 8. 긍정성 | .411** | .506** | .426** | .414** | .475** | .526** | .572** | 1.00 | |
| 9. 회복탄력성 전체 | .406** | .530** | .477** | .499** | .507** | .818** | .853** | .840** | 1.00 |

** $p < .01$

3.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위의 <표 5>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경우 다른 하위변인들과의 상관계수가 .8 이상으로 유의미한 자기상관성이 있어 통제하고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표 6-1>과 <표 6-2>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총 26.9%를 설명하였고, 그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7.822, p < .001$). 구체적으로 보면, 물질적 지지는 긍정성($\beta=.264, p < .05$)과 회복탄력성 전체($\beta=.227, p < .05$)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주었고, 평가적 지지는 자기조절능력($\beta=.263, p < .05$)과 대인관계능력($\beta=.349, p < .01$), 긍정성($\beta=.221, p < .05$), 회복탄력성 전체($\beta=.329, p < .01$)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주었다. 즉, 보육교사에게 물질적 지지가 많이 제공될수록 긍정성과 회복탄력성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고,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회복탄력성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6-1>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 | 대인관계능력 | | |
|--------|------|---------|--------|--------|---------|---------|
| | B | β | t | B | β | t |
| 물질적 지지 | .087 | .146 | 1.325 | .096 | .158 | 1.503 |
| 평가적 지지 | .182 | .263 | 2.385* | .246 | .349 | 3.318** |
| 상수 | | | 2.517 | | | 2.333 |

| | | |
|----------|-----------|-----------|
| 제공합(SS) | 3.441 | 5.544 |
| 자유도(df) | 2 | 2 |
| 제공평균(MS) | 1.720 | 2.772 |
| R^2 | .147 | .227 |
| F | 13.035*** | 22.215*** |

* $p<.05$, ** $p<.01$, *** $p<.001$

<표 6-2>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 | 회복탄력성 전체 | | |
|----------|------|-----------|--------|----------|-----------|---------|
| | B | β | t | B | β | t |
| 물질적 지지 | .181 | .264 | 2.475* | .120 | .227 | 2.223* |
| 평가적 지지 | .175 | .221 | 2.071* | .202 | .329 | 3.216** |
| 상수 | | 2.272 | | | 2.376 | |
| 제공합(SS) | | 6.273 | | | 4.954 | |
| 자유도(df) | | 2 | | | 2 | |
| 제공평균(MS) | | 3.137 | | | 2.477 | |
| R^2 | | .204 | | | .269 | |
| F | | 19.352*** | | | 27.822*** | |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개인변인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와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관계,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경력, 연령, 기관유형, 결혼유무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과 전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경력의 경우 긍정성과 회복탄력성 전체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는데, 7년 이상의 경력교사가 3년 이하와 4-6년 경력교사 보다 회복탄력성 전체와 긍정성을 유의하게 높게 경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치원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소영(2014)의 연구와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한 권수현과 이승연(2010)의 연구, 특수학교 교사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홍승희(2009)의 연구 등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직경력이 높아질수록 보육교사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교직을 유지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생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이 높은 교사들이 지속해서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과

경력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회복탄력성이 높은 교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육교사의 연령의 경우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성, 회복탄력성 전체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다. 25세 이하 교사 보다 46세 이상 교사가 회복탄력성 전체를 유의하게 높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자기조절능력은 25세 이하 교사 보다 41-45세 교사가 유의하게 높게 형성하였고, 긍정성에서는 41-45세와 46세 이상 교사가 25세 이하의 경우 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게 형성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초등교사의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Roman-Oertwing(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며, 유치원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소영(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연령이 높은 교사는 사소한 일에 쉽게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며, 연륜과 다양한 문제해결경험을 통해 높은 자기조절능력과 자신의 일에 대해 능동적이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 기관유형에서는 긍정성과 회복탄력성 전체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는데,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법인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회복탄력성 전체와 긍정성을 높게 형성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법인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회복탄력성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게 나타난 최효정과 석은조(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 같은 결과는 법인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적인 보상이나 기관의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의 근무환경이 보육교직원이나 부모와의 대인관계형성 면에서 더 밀착되어 있고, 이로 인한 심리적인 만족감과 상호작용이 물리적인 근무여건 보다 회복탄력성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인관계 중심의 업무를 처리하는 보육교사는 인간관계가 친밀한 분위기와 가족적인 조직 환경 속에서 더 의미 있게 회복탄력성을 형성함을 추측할 수 있다. 추후 기관유형별 회복탄력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심층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린이집의 크기나 기관의 운영원리, 교사 수, 기관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여부, 조직문화 등이 교사가 회복탄력성을 경험하는데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때, 회복탄력성을 보다 높게 형성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은 현장에 시사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보육교사의 결혼유무의 경우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성, 회복탄력성 전체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확인되었는데,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 보다 회복탄력성 전체, 자기조절능력 그리고 긍정성을 높게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권수현과 이승연(2010)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며, 초등 기혼교사의 정서지능이 미혼 교사보다 높다는 최승규(2001)의 연구결과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기혼교사는 미혼교사에 비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김지은, 안선희, 2007),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높고, 가족을 포함한 생활만족도가 높아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기혼 보육교사의 경우 가정과 어린이집의 이중생활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중할 뿐 아니라(장미정, 2013) 교직수행역할과 주부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갈등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보육교사가 결혼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탄력적인 근무시간 도입 등의 여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차가 없었으나,

실제적 유의성 측면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학력이 높은 집단이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회복탄력성 전체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학력이 높은 유치원교사가 회복탄력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권수현과 이승연(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동시에 분석한 이소영(2014)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보육교사의 지적 능력이라 할 수 있는 학력이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건강한 도전의식을 불러 오며, 타인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고, 어려움에 맞서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강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대상의 학력분포는 전문대학 졸업이 약 60% 비중으로 집단크기의 균등성이 확보되지 않아 선행연구결과에 비해 학력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력집단 간 표집수를 균등하게 선정하여 학력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각 하위변인 및 전체 간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 전체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의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전체와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등의 하위요인이 높아짐이 분석되었다. 이는 보육교사가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전체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낮은 회복탄력성을 유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재영(2012)의 연구결과와 이연희(2013)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도남희(2008)의 결과, 그리고 Brissette, Scheier와 Carver(2002)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으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높게 지각할수록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힘이 강해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거나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주는 정보를 사람들로부터 많이 얻을수록 문제에 대해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인내하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교사가 기관을 포함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구성원들이 충고나 조언을 해주며, 업무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능동적이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높게 유지하게 된다. 더불어 보육교사가 업무수행과 연관된 물건이 필요할 때 대가 없이 물건을 빌려주거나 기꺼이 도와주는 지지가 구성원 내에 많을수록, 업무상 힘든 상황에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 일을 대신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지지자가 많을수록 도움을 준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정서적인 안녕감을 높게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높아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물질적 지지는 긍정성과 회복탄력성 전체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주었다. 이는 보육교사에게 물질적 지지가 풍부하게 제공될수록 긍정성과 회복탄력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보육교사로서 역할수행 시 건강이 악화된 것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동료교사나 원장이 일을 대신해주는 등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힘이 되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자

원을 제공한다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과 대처능력이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호 친밀한 사회관계망은 업무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며 심리적 안정감과 자긍심을 형성하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고,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Galinsky, Howes와 Kontos(1994)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현실의 수용과 유머를 사용하는 등 보다 더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상황에 대처한다(김소연, 2013)고 보았을 때, 보육교직원들이 물질적인 지원을 다각적으로 제공해준다면 교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더 적게 경험하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적응해 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가운데 평가적 지지는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회복탄력성 전체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주었다. 즉,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회복탄력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현재 보육교사 대부분은 수업준비 및 연구시간의 부족, 낮은 수준의 처우와 미약한 지원체계, 행정 등의 업무 부담가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갈등 및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김정희, 최미경, 2013). 이는 직무수행 시 긴장감을 높여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며 직무만족도를 저해하여 높은 이직률과 낮은 회복탄력성의 원인이 된다.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데, 회복탄력성은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노현지, 2007).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동료교사나 원장 등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칭찬이나 인정, 존중감을 보육교사가 인식하게 되면 회복탄력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교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내적인 보호요소로 작용해 교사들을 성장시키고 효능감을 기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직무스트레스를 극복하여,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교육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며(권수현, 이승연, 2010),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 또는 구성원과의 인간관계나 행정적 업무로 인한 갈등의 요소가 많은 직업이며, 일반기업체와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가 높다(Kovess-Masfety, Rios-Seidel, & Sevilla-Dedieu, 2006). 특히 보육교사는 발달에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있는 교육적 욕구가 각기 다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민첩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고 교육해야 한다.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교육활동 및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보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된다. 긍정적인 정서가 높다는 것은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이며, 높은 회복탄력성은 보육교사의 직무상황에 역동적이고 유연하게 발휘되어 결과적으로 영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보육교사가 겪는 스트레스와 낮은 회복탄력성은 인격형성의 민감한 시기인 영유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영유아들에게 작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특성과 근무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변인들을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통해 보육교직원을 포함하여 보육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일부 지역의 교사연수 참가자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대표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횡단적인 결과이므로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통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개인변인과 사회적 지지 등의 변인을 살펴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아개념, 직무소진과 같은 교사를 둘러싼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개인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집단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사회적 지지의 제공원으로 두고 분석을 하였는데 가족이나 학부모, 지역사회, 정부 차원에서의 지지를 조사하여 좀 더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며,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전 교육이나 현직 교육내용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 문헌

- 권수현, 이승연(2010).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7(2), 137-157.
- 김소연(2013). 유아특수교사의 회복탄력성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희(2007). 원장의 리더십과 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희, 최미경(2013).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정서노동, 직무소진의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2(2), 51-68.
- 김지은, 안선희(2007). 영아교사의 개인적 배경 및 근무여건과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8(3), 149-162.
- 노현지(2007). 특수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남희(2008). 소년소녀가장의 탄력성: 사회적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혜, 전셋별(2010).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7(1), 253-273.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배영선(2007). 유치원 일반학급교사와 통합학급교사의 소진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영(2014).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연희(2013).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경(1999). 유치원 교사의 갈등관리유형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교육학연구**, 37(3), 365-383.

- 이재영(2012).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회복탄력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현(2013). 특수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 및 직무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의 관계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희, 조성연(2011).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시설장, 동료교사와 가족의 사회적 지지. **아동학회지**, 32(1), 157-172.
- 장미정(2013). 어린이집 기혼교사의 가정-일 역할갈등, 어머니 자녀관계가 어머니의 발달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성연, 이정희(2010).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원장 동료의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29-42.
- 조성자, 문수백, 민하영(2008).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지각된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25-32.
- 최승규(2001). 초등학교 교사의 정서지능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수원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효정, 석은조(2013).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5, 93-115.
- 황승미(2013).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 교사의 회복탄력성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해익, 탁정화, 홍성희(2013).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3), 411-432.
- 홍승희(2009). 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uch-Feldman, C., Brondolo, E., Ben-Dayan, D., & Schwartz, J. (2002). Source of social support and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7, 84-93.
- Block, J. G., & Kremen, A. M. (1986).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rissette, I., Scheier, M. F., & Carver, C.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02-111.
- Castro, A. J., Kelly, J., & Shine, M. (2010). Resilience strategies for new teacher in high-needs area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6, 622-629.
- Galinsky, E., Howes, C., & Kontos, S. (1994). *The family child care training study: Highlights of findings*. NY: Families and Work Institute.
- Gu, Q., & Day, C. (2007). Teachers resilience: A necessary condition for effectivenes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3, 1302-1316.
- Holahan, C. K., & Holahan, C. J. (1987).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aging: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42(1), 65-68.
- Kovess-Masfety, V., Rios-Seidel, C., & Sevilla-Dedieu, C. (2006). Teachers' mental health and teaching level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3, 1177-1192.

- McCormack, D., Casimir, G., Djurkovic, N., & Yang, L. (2006). The concurrent efforts of workplace bullying, satisfaction with supervisor, and satisfaction with co-workers on affective commitment among school teacher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7*, 316-331.
- Reivich, K., & Shatte, A. (2002). *The resilience factor: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s*. NY: Broadway Books.
- Roman-Oertwing, S. (2004). *Teacher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In, U.S.A.
- Schwarzer, R., & Nina, K. (2007). Functional roles of social support within the stress and coping proces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2*(4), 243-25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child care teachers' personal characteristics,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54 child care teachers working in Gangwon province. The resilience questionnaire(Jung Hyun Lee, 2013) revised from KRQT-52(Korean Resilience Quotient Test) and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Lee Jae-Young, 2012) were used for this study. For the research analysis, frequency, Cronbach's α coefficient, and Pearson's correlation were calculated and ANOVA test, Scheffé post-hoc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revealed that child care teachers' experiences, age, marital status, and type of child care center had a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in resilience. In contrast, teachers' educational backgrounds did not have a meaningful difference in resilience. Secondly, all the sub-variables of teac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l sub-variables of their resilience. Thirdly, physical support of child care teac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had statistically meaningful positive influences on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and the overall resilience. Also evaluative support of child care teac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had statistically meaningful positive influences on the interpersonal skills, self-regulation, positive characteristics, and the overall resilience of resilience. In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it is needed to strengthen child care teac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for enhancing resilience, taking into account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teachers.

▶*Key Words* : *resilience, social support, child care teacher*

| | |
|--------|---------------|
| 논문투고 | 2014. 04. 15. |
| 수정원고접수 | 2014. 06. 03. |
| 최종게재결정 | 2014. 06. 15. |